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 전기 태묘 제례의 酒器진설과 祭酒사용

Brewage for the Teamyo Rites and Its pot in Early  
Goryeo Dynasty

2017년 2월

한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김우성

# 고려 전기 태묘 제례의 酒器진설과 祭酒사용

지도교수 안 병 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한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김 우 성

김우성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정   해   득

---

부심     안   병   우

---

부심     이   세   영

---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7년 2월

## 국문요약

고려의 太廟 祭禮는 태조를 포함한 역대 국왕들을 祭主인 현 국왕과 품관들이 제향하는 가장 큰 유교 제례 중 하나이다. 제례의 성격은 祭主와 제례 대상이 의례 안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때, 즉 제주의 헌작과 음복을 통해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는 태묘에서의 제주 사용과 제주를 담는 주기를 통해 祭主와 제례 대상, 그리고 참여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려 전기의 예제는 성종 대부터 숙종 대까지의 시기와 숙종부터 의종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 고려는 송 이전 시대를 다룬 유교 예서를 송에서 받아들였지만, 당시 송에서 사용하던 예제를 정리한 『開寶通禮』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오제 사용과 주기 진설은 『大唐開元禮』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두 번째 시기에 숙종은 『開寶正禮』를 구해 예부에 하사했다. 이는 『開寶通禮』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開寶通禮』의 내용은 현전하지 않지만 이후 편찬된 『太常因革禮』가 『開寶通禮』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은 『開寶通禮』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大唐開元禮』와 『太常因革禮』를 통해 고려의 제주 사용과 주기 진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태묘 제례에서 다섯 가지 의주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네 가지만 전해지고 있다. 태묘의 네 의주는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 친향의와 접사의로 나뉘며, 제례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헌관이 차이가 있다. 또한 제례의 위계에 따라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이 달랐다.

주기 중에서 彝는 시향에서 사용한 것이 당제의 내용과 일치한다. 봄과 여름, 시향에서 동일하게 진설하였고, 납일과 가을, 겨울에는 동일한 진설 형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숙종 대에 송의 예서가 들어오면서 체향·협향에서 호이와 유이를 사용하여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尊은 같은 위계는 차이가 없지만 위계가 다를 경우 준이소의 개수와尊의 진설에 차이를 두어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구분하였다. 이는 국왕의 참여 여부보다는 제례 대상인 역대 국왕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는 오제, 제수, 삼주를 나누어 정리했다. 모든 제례에서 국왕만이 별도의 오

제를 사용하여 가시적으로 지위를 높였다. 제수는 맛의 근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진설했으며, 이 중 현주가 음복주임을 확인했다. 삼주는 제례 이후 분사하는 분사주로 사용했다. 이는 품계의 고하에 따라 청주, 석주, 사주 순으로 분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태묘의 제례 안에서 태조를 비롯한 역대 국왕-현 국왕-품계에 따른 참여자의 질서를 부여했고, 현 국왕의 참여여부보다 제향의 위계를 중시했다. 제주에서 현작주인 오제는 그 사용 방식이 국왕의 지위를 부각시키는 것이었고, 음복주는 현주를 사용했다. 삼주는 품계에 따라 참여관원들에게 분사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 태묘 제례의 특징들은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었다.

## Abstract

A sacrificial rite for a line of Kings including Taejo performed by the current King who was the Jeju (祭主: the master of religious rites), and Pungwans (government officials), Taemyo Ancestral Ritual in the Goryeo Dynasty was one of the biggest Confucianism ancestral rituals. The characteristics of ancestral rituals stand out the most clearly when Jeju and the ritual's subject physically meet in the rite. This is the same for Taemyo Ancestral Ritual, and can be seen through Heon-Jak (offering a cup of drink) and Eum-Bok (partaking sacrificial food and drink)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Jeju (祭主: the master of religious rites), the ritual's subject and participants through use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and Jugi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that Jeju is put in.

Rituals in the early period of Goryeo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period from Seongjong to Sookjong, and the period from Sookjong to Euijong. During the first period, Song Dynasty sent Goryeo Confucianism Ye-Seo that deals with periods before the Song Dynasty; 『Gae-Bo-Tong-Rye (開寶通禮)』 that includes rituals of the Song Dynasty at that time was not disclosed. It was confirmed that use of Oje and Jinseol (arranging) of Jugi imported into Goryeo from the Song Dynasty were fairly similar to that in 『Dae-Tang-Gye-Won-Rye (大唐開元禮)』.

In the second period, Sookjong gives 『Gae-Bo-Jung-Rye (開寶正禮)』 to Yebu. This is considered as another name of 『Gae-Bo-Tong-Rye (開寶通禮)』. Although the contents of 『Gae-Bo-Tong-Rye (開寶通禮)』 do not exist today, 『Tae-Sang-In-Hyuk-Rye (太常因革禮)』, which was compiled later, includes the contents of 『Gae-Bo-Tong-Rye (開寶通禮)』. Most of all, use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and arranging of Jugi were the same in the two Ye-Seos. As such, the study could verify changes in use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and Jinseol of Jugi in Goryeo through 『Dae-Tang-Gye-Won-Rye (大唐開元禮)』 and 『Tae-Sang-In-Hyuk-Rye (太常因革禮)』.

Out of the five Euijus of Taemyo ancestral rituals in Goryeo, only four have been handed down today. They are divided into Chin-Hyang-Eui and Seob-Sa-Eui according to participation of the King; although the procedure of the ancestral rituals is the same, Heongwan (an official in charge of rituals) was different.

Moreover, they can be separated into Che/Hyup-Hyang, Si-Hyang·Nap-Hyang based on the class of ancestral rituals: they have different use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and Jinseol of Jugi.

Among Jugis, only Si-Hyang has the same 彝 of Tang Ritual. Two seasons of Si-Hyang, spring and summer, used as a single Jinseol, while Nap-Il used a single format of Jinseol along with fall and winter. With the import of Ye-Seo of the Song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Sookjong, Che/Hyup-Hyang employed Hoi and Yui, separating Che/Hyup-Hyang and Si-Hyang·Nap-Hyang clearly.

尊 was the same for the same class; with different classes, however, the number of Juneeso and Jinseol of 尊 were different to separate Che/Hyup-Hyang and Si-Hyang·Nap-Hyang. This can be considered that it was performed focusing on the ritual's subjects, a line of the Kings, rather than whether the King participates or not.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was divided into Oje, Jesu and Samju. First, compared to the Goryeo Dynasty, only the King uses a different Oje at all ancestral rituals to dignify the King. Jesu was arranged with the symbol of the source of tastes, and Hyun-Joo (clear cold water used instead of alcohol for rituals) was confirmed to be Eum-Bok-Ju. Also, Samju was used as for spraying after ancestral rituals. It is considered that Jesu was distributed in the order of Cheongju, Seokju and Saju based on the official rank.

Goryeo imposed order of participants in Taemyo ancestral rituals according to the rank of a line of Kings including Taejo and the current King. Also, it prioritized the class of a sacrificial rite rather than the participation of the current King. The Goryeo way of using Oje that dignified only the King was highlighted statuses of the King. Participating officials sprayed Samju according to the official rank. Such characteristics of Taemyo ancestral rituals of Goryeo were reflected in the use of Jeju (alcohols used for rituals) and Jinseol of Jugi visually.



# 목 차

I. 서론	1
II. 고려의 예서 도입과 태묘의 儀注	
1. 고려의 예서 도입	3
2. 태묘의 儀注	7
III. 酒器의 진설	
1. 彝의 진설	12
2. 尊의 진설	18
III. 祭酒의 주조와 사용	
1. 五齊의 주조와 사용	24
2. 음복과 분사	30
IV. 결론	36
참고문헌	38

## 부 표 목 차

<부표 1>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晨裸	-----	40
<부표 2>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饋食	-----	41
<부표 3>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	42
<부표 4>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饋食	--	43

# I. 서론

유교의 제사는 제례 대상에 따라 大祀, 中祀, 小祀로 나눈다. 大祀에 속하는 太廟는 제례 대상인 태조를 포함한 고려의 역대 국왕들, 祭主인 현 국왕, 참여자인 현직 품관들의 세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祭主인 현 국왕은 제례 대상인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제향 하는 의례를 통해 정통성을 과시하였다. 참여자인 품관들은 이 의례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의 국왕이 역대 국왕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는 과정에 참여했다. 즉 태묘 제례는 고려 왕계를 성스럽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현재의 질서를 확인하는 행위였다. 본고에서는 태묘 제례 안에서 제례 대상, 祭主, 참여자의 관계설정을 주목하려 한다.

의례는 종교의 이상이나 가치관 등을 형상화해 ‘보여주는 것’이다.<sup>1)</sup> 태묘 제례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祭酒와 酒器인데 제주는 제례 대상과 祭主의 관계를 반영하여 사용되었고, 제주는 주기인 彝, 尊, 罍 등에 담아 사용되었다. 이 주기의 진설에도 각 주체들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은 제례 대상, 祭主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소비는 祭主와 참여자의 관계를 드러낸다. 제주는 제례의 진행 과정에서 飲福을 통해 헌관이 직접 마시는 제물으로써, 籩, 豆에 진설하는 제물이나 희생 등의 제물과는 달리 사용되었다. 음복은 제례 대상인 祭主에게 福을 내려주는 행위이다. 이 복은 제례가 끝나고 祭主가 참여자에게 제주를 분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음복과 분사라는 제주의 소비를 통해 제례 대상의 앞에서 현 국왕의 정통성과 품관 개개인들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고려 전기의 제주 사용과 주기 진설은 송으로부터 여러 차례 예서를 받아들이면서 정립되었다. 새로운 예서가 도입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예제는 변화하기 때문에 제주의 사용과 준이의 진설도 변화하였다. 고려는 여러 예서를 획득하여 적용하면서 예제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高麗史』 禮志 편찬의 기준이 된 시기에는 확보한 여러 예제 중에서 고려의 실정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형식을 기반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에서는 가장 고려적인 방식으로 제례 대상, 祭主, 참여자의 관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송으로부터의 예서도입 시기를 명확히 규명 하여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캐서린 벨(Catherine Bell), 류성민 譯, 2007,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고려 태묘에서 사용한 제주와 주기를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태조 사후 진행된 추모, 신성화, 상징화, 숭배의 형태로 정리하고,<sup>2)</sup> 이것이 충선왕 이후 태묘와 별묘의 준비를 다룬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sup>3)</sup>

이 글은 II장에서는 송의 禮書 편찬 시기와 고려의 예서 요청시기를 비교하여 송 예서의 도입 시기를 도출했다. 그리고 『高麗史』 禮志에 수록된 태묘 제례의 절차를 다뤘다. III장은 주기의 진설을 서술했다. 彝와 尊의 진설을 통해 고려가 도입한 예제를 사용한 방법과 제례 대상과 祭主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IV장에는 제주의 사용을 오제의 사용과 음복, 분사의 측면으로 연구하였다.

---

2) 한정수,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107, 한국사학회

3) 이강한, 2010, 「14세기 高麗 太廟의 혁신과 변천」,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 II. 고려의 예서 도입과 태묘의 儀注

### 1. 고려의 예서 도입

고려는 송으로부터 도입한 예서를 통해 제주의 사용과 준이의 진설을 받아들였다. 고려는 계속해서 새로운 예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송에 예서를 요청했다. 새로운 예서가 도입되면 고려의 예제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 역시 변화하였다. 따라서 송 예제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규명 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이미 신라의 유교 예제를 확보하고 있었다. 신라의 유교 예제는 김춘추가 등장할 무렵 당으로부터 도입되어 서서히 정착되었다. 하지만 당의 예제와는 차이가 있다.<sup>4)</sup> 신라의 유교 예제는 태묘, 사직, 선농, 풍사, 우사, 영성 등 당과 비슷한 제례 대상을 모시지만, 3산과 5악 등의 국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김춘추의 즉위가 내부적으로 순탄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도 백제와의 전쟁이 있었으므로 그 시행에 시기적 차이가 있었다.<sup>5)</sup>

고려 전기에는 성종과 숙종 두 차례에 걸쳐 예서가 도입되었고, 선종 대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성종 대는 태조 이후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체제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무력 대신 유교적 관료 제도와 통치 이념의 정립을 통해 정치 사회 구조를 재편하려 하였다.<sup>6)</sup> 이를 위해 성종은 즉위 초에 송에서 유교예제를 도입하였다.

① 성종 2년 5월에 博士인 任老成이 송나라로부터 와서 『太廟堂圖』 1폭과 『太廟堂記』 1권, 『社稷堂圖』 1폭과 『社稷堂記』 1권, 『文宣王廟圖』 1폭 및 『祭器圖』 1권, 『七十二賢贊記』 1권을 바쳤다.<sup>7)</sup>

성종 2년(983)년 박사 임노성은 송으로부터 태묘, 사직, 문선왕묘에 관한 예서와 그림을 고려에 가져왔다. 고려가 예서를 도입한 983년은 송이 『三禮圖』와 『開寶通禮』의 두 예서를 편찬한 뒤였다. 『三禮圖』는 962년에 聶崇義가 송 이전 시기의 예제를 정리한 것으로, 三禮인 『周禮』, 『儀禮』, 『禮記』에 기록된 여러 기물이나 제단 등

4) 나희라, 1997,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제98호, 57-90

5) 채미하, 2002, 「新羅 宗廟制의 受容과 그 意味」, 『歷史學報』 第176輯, 41-65

6) 최인표, 2004,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165-195, 한국학진흥원

7)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2年 5月. “博士任老成至自宋 獻太廟堂圖一鋪并記一卷 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

을 문자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지자 자료를 모아 그림으로 그려 편찬한 예서다. 『開寶通禮』는 973년에 편찬되었다.

이 두 예서는 다루는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大唐)開元禮』는 당 나라 300년 동안 쓰인 예이고, 『開寶通禮』는 우리 宋나라 100년 동안 쓴 예입니다.<sup>8)</sup>

실제 『開寶通禮』의 제작연도는 개보 6년(973)으로 건국 후 20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②와 같은 구양수의 서술로 볼 때 『開寶通禮』는 송 태조 당시에 사용한 예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開寶通禮』는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고려는 『開寶通禮』를 입수하려 하였다.

③ 송 철종이 즉위하자 고려는 김상기를 보내 위문하고 임개를 보내 치하하였다. 형법 관련 문서와 함께 『太平御覽』과 『開寶通禮』, 『文苑英華』의 구매를 요청했다. 황제는 『文苑英華』 1책과 명마, 비단 등으로 그 예에 보답하게 하였다.<sup>9)</sup>

④ 선종 7년에 송 에서 『文苑英華集』을 보내주었다.<sup>10)</sup>

고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開寶通禮』는 송이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 사신들은 송 철종의 즉위(1085) 하례와 함께 형법서와 예서를 구해오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 그런데 요청한지 5년 뒤에 『文苑英華』만을 보내고 『開寶通禮』는 주지 않았다. 즉 선종 대 까지 『開寶通禮』는 확보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숙종 3년(1098) 무렵 고려가 송의 예서인 『開寶正禮』를 보유하고 있었다.

⑤ 숙종 3년. 송나라에서 간행한 『開寶正禮』 한 부를 禮部에 내려주었

8) 歐陽修, 「論議濮安懿王典禮劄子」, 『唐宋八大家文鈔』 卷2. “開元禮者 有唐三百年所用之禮 開寶通禮者 聖宋百年所用之禮.”

9) 『宋史』 卷487 列傳 第246卷. “哲宗立 遣使金上琦奉慰 林暨致賀 請市刑法之書太平御覽開寶通禮文苑英華 詔惟賜文苑英華一書以名馬錦綺金帛報其禮.”

10)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7年. “十二月 壬寅 宋賜文苑英華集.”

다.<sup>11)</sup>

숙종이 예부에 『開寶正禮』를 한 부 내려준 것이다. 하지만 『開寶正禮』에 대한 사료는 위 사료뿐이기에 『開寶正禮』가 어떤 책인지, 이를 구한 경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숙종이 내려준 『開寶正禮』는 『開寶通禮』를 지칭하거나 그에 준하는 예서일 것으로 보인다. 송사나 문집에서 『開寶正禮』라는 書名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명칭은 『開寶通禮』가 ‘正禮’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開寶’는 송 태조 의 연호(968~975년)였다. 『開寶通禮』는 開寶 年間に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보통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開寶正禮』는 『開寶通禮』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만약 다른 예서라면 『開寶通禮』 이외에 다른 예서를 또 편찬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설사 다른 예서라 해도 편찬시기가 개보년간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용의 시간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開寶通禮』는 현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지만, 『太常因革禮』를 통해 고려가 받아들인 예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太常因革禮』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편집자인 蘇老泉이 활동한 嘉祐 年間(1054-1063)으로 추정할 수 있다.

『太常因革禮』의 五齊三酒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⑥ 通禮에서 대사, 중사, 소사는 모두 오제삼주를 사용한다.…이는 모두 『開寶通禮』에서 나왔다.<sup>12)</sup>

첫 문장의 ‘通禮’는 『開寶通禮』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기에 관해 서술하고, 마지막에 “이는 모두 『開寶通禮』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太常因革禮』가 『開寶通禮』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도 『開寶通禮』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숙종 3년(1098) 무렵에 예부에 하사한 『開寶正禮』의 제주 사용과 『太常因革禮』의 제주 사용은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고려는 성종 대 『三禮圖』와 같은 송 이전의 유교 예서를 구득하였으며, 선종 대에 『開寶通禮』를 요청했으나 송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숙종 3년

11) 『高麗史』 世家11 卷11 肅宗 3年. “十二月 … 丙申 賜禮部 宋朝 開寶正禮一部.”

12) 『太常因革禮』 總列13 五齊三酒. “通禮 大祀中祀小祀 皆用 五齊三酒 … 此皆出於開寶通禮 崇祀之文沿有唐以前舊制而爲之率合經義.”

(1098) 무렵에 『開寶正禮』를 예부에 하사하였는데, 이는 『開寶通禮』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開寶通禮』의 내용은 현존하지 않지만 이 후 편찬된 『太常因革禮』가 『開寶通禮』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오제삼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은 『開寶通禮』의 것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開寶通禮』의 내용은 『太常因革禮』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2. 태묘의 儀注

태묘의 의주는 禘祫親享儀, (禘祫)有司攝事儀, 四孟月及臘親享儀, (四孟月及臘)有司攝事儀, 朔望薦新祈禱及奏告儀가 있다.<sup>13)</sup> 의주는 祭主의 참여에 따라 친향의와 섭사의로 나누고, 위계에 따라 제향과 협향, 시향과 납향으로 분류한다. 이 외에 초하루, 보름, 천신일 등의 제향이 있지만 그 기록이 매우 소략하다. 따라서 삭망천신기도 급주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주를 중심으로 태묘제례의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태묘 제례의 절차는 齋戒-陳設-鑾駕出宮-省牲器-晨禋-饋食-送信-鑾駕還宮의 순으로 진행한다. 재계와 진설은 제향의 준비 단계이다. 난가출궁은 태묘 제례를 위해 국왕이 태묘로 이동하는 의례이고, 난가환궁은 제례가 끝나면 태묘에서 궁으로 돌아오는 의례이다. 성생기에서는 제향 전 희생과 제물, 제기의 상태를 확인한다. 신관은 제물을 통해 제례 대상을 모셔오고, 귀식은 헌작과 음복을 통해 제례 대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례이다. 송신에서 모든 제례 절차가 마무리 되어 신을 돌려보내고 국왕은 환궁한다. 제주는 신관-귀식 단계에서 사용한다.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의주는 친향의와 섭사의로 나뉜다. <부표 1>은 두 의주에서 신관 단계의 제물 사용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표 1>은 친향의와 섭사의의 차이만을 다시 정리하였다.

<표 1>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晨禋

순서	내 용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ㄱ. 역대 국왕의 신주를 모시는 의례	모시는 품관: 太祝과 궁위령	모시는 품관: 궁위령과 祝史
ㄴ. 태묘에 역대 국왕들을 강신하는 의례	인도: 太常卿 강신: 국왕	인도: 謁者 강신: 太尉
ㄷ. 강신을 마무리하는 의례	여러 太祝	여러 祝史

대부분의 절차는 같지만 집례자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ㄱ은 감실에서 역대 국왕들의 신주를 받들어 신좌에 모실 때, 친향의에서는 태축과 궁위령이 모시고 섭사의에서는 궁위령과 축사가 모신다. ㄴ은 초헌관이 울창주를 통해 선왕들

13)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을 태묘에 강신하는 의례에서, 친향의의 경우 초헌관인 국왕을 태상경이 모시고 섭사  
의의 경우 알자가 태위를 모신다. ㄷ은 강신이 끝나고 희생의 모혈과 쑥 기장 등을  
태우는 의례에도 제물을 올리는 사람이 각기 달랐다.

<부표 2>는 친향의와 섭사의의 궤식 단계이고, <표 2>는 친향의와 섭사의의 차이  
만을 정리하였다.

<표 2>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饋食

行 禮	순서	내 용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饋 食	ㄹ. 초헌례	초헌관: 국왕 초헌 인도: 侍中 음복주를 모아두는 사람: 太祝	초헌관: 太尉 초헌 인도: 謁者 음복주를 모아두는 사람: 祝史
	ㅁ. 아헌례	아헌관: 太子, 公, 侯, 伯/太尉	아헌관: 太常卿
	ㅂ. 종헌례	종헌관: 太尉/光祿卿	종헌관: 光祿卿

삼헌의 주체는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친향의는 국왕이 초헌을 올렸  
다. 태자, 공, 후, 백, 이나 태위가 아헌관을 맡았고 태위나 광록경이 종헌을 했다. 섭  
사의는 태위, 태상경, 광록경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을 담당했다. 초헌을 인도하는  
사람도 친향의는 시중이 국왕의 헌작을 돕고, 섭사의는 알자가 태위를 돕는다. 음복주  
를 하나의 작으로 모으는 사람도 달랐다. 따라서 친향의와 섭사의에서는 총 다섯의  
역할이 달랐다.

태묘의 헌관에 대한 규정은 아래의 사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⑦ 獻官. 太子와 公·侯·伯이 아헌을 하고, 태위가 종헌을 한다. 혹 태위가  
아헌을 하고 광록경이 종헌을 한다. 태위·宰臣이 섭사할 때는 태위가 초헌을  
하고, 태상경이 아헌을 하며, 광록경이 종헌을 한다.<sup>14)</sup>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표 2>에서 삼헌의 헌관들이 친향의에서는 초헌관은 국왕,  
아헌관은 태자, 공, 후, 백/태위, 종헌관은 태위/광록경에서 섭사의의 태위, 태상경,

14)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獻官. 太子若公侯伯爲亞獻 太尉爲終獻 或太尉爲亞獻 光祿卿爲  
終獻 太尉宰臣爲之攝事 太尉爲初獻 太常卿爲亞獻 光祿卿爲終獻.”

광록경으로 달라진다. 초헌을 인도하는 사람과 음복주를 모아두는 사람은 헌관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친향의와 섭사의 헌관의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품계도 달랐다.

국왕과 태자, 공, 후, 백을 제외하면 관료들이 헌작에 참여한다. 먼저 태위의 규정은 ⑧번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⑧ 三師三公. 大師·太傅·大保를 三師라 하고, 太尉·司徒·司空을三公이라 하였는데, 그 적임자가 없으면 비워두었다. 처음 설치한 시기는 上考할 수 없다. 문종 때에 3사와 3공을 각각 1인씩으로 정하고,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충렬왕 때에 모두 폐지하였으나,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11년(1362)에 또 이들 관직을 혁파하였다.<sup>15)</sup>

태위의 품계는 정 1품으로 司空·司徒와 함께三公으로 불렸다. 고려 전기에 태위는 고위관료나 왕족을 임명하였다. 『高麗史』列傳에서 태위에 임명된 품관은 대부분 幸樞의 반열까지 올라간 고위 품관들이었고,<sup>16)</sup> 왕족은 주로 妃父와 왕자들이었다. 고려 초 태조 부터 문종 때 까지는 외척이 임명되었고,<sup>17)</sup> 현종의 넷째 아들인 평양공 왕기를 시작으로 왕자들이 태위 직을 받았다.<sup>18)</sup> 즉 태위는 왕족이거나 재상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 하사했던 직책이다.

태상경은 섭사의에서 아헌을 담당하는 소속의 정 3품관이다. 성생기 단계에서 희생을 확인하고 신관, 귀식, 송신단계에서 국왕의 행례를 앞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아헌관이 되었다.

광록경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광록경은 한나라 武帝 때 光祿勳으로 불렸다. 이는 궁중에서 숙식을 하거나 황제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관원의 우두머리를 지칭했다. 이후 북제 때 광록시가 설치되었다. 광록시에는 卿과 少卿이 있었고, 황실의 음식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당나라 때의 광록시는 ‘酒醴膳羞之事’를 담당하였다.<sup>19)</sup>

15) 『高麗史』卷76 至 第30 百官1 三師三公. “三師三公. 大師太傅大保 爲三師 太尉司徒司空 爲三公 無其人則闕 其始置歲月不可考 文宗定三師三公各一人 皆正一品 忠烈王罷 恭愍王五年復置 十一年 又罷之.”

16) 최량, 왕가도, 윤징고, 유소, 강감찬, 소태보, 채충순, 임의, 왕충지, 정문, 문정, 최사추, 김원정, 허재, 최사전, 김정순, 이자연, 이자겸, 박승중, 홍관, 문공인, 김부식, 김부일, 오연총, 임원후 등

17) 황보제공(태조 후비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父), 박수문(태조 후비 월경원부인 박씨의 父), 김원승(성종 후비 문화왕후 김씨의 父), 이자연(문종 후비 인예순덕태후 이씨의 父) 등

18) 평양공 왕기, 평양공의 아들인 왕평, 왕진, 낙랑백 왕영, 개성후 왕개, 금관후 왕비, 조선공 왕도, 진한후 왕유, 상당후 왕필, 대방공 왕보, 대원공 왕효, 제안후 왕서, 통의후 왕교 등

고려의 光祿寺 『高麗史』 百官志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종 2년에 광록경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중앙관아의 하나로 보이며, 尙食局과 유사한 공상기구이거나 魚梁川澤을 관장한 司宰寺와 비슷한 기구였을 것이다.<sup>20)</sup> 『高麗史』 禮志에서 광록경은 원구와 태묘 등에 참여하여 성생기 단계에서 명수와 명화를 취하는 것을 감독했다. 이로 보아 광록경은 아마 제례의 절차와 제물의 일부를 관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록경의 품계는 문종 대의 관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종 3품이었을 것이다. 당시 奉常寺, 太僕寺, 大府寺, 司宰寺의 卿이 모두 종3품관이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이로 볼 때 제례에서 음복에 참여할 수 있는 품계는 초헌은 정 1품 이상, 아헌 이하는 종 3품 이상이다. 이는 음복 헌관의 품계 하한을 종 3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친향의와 섭사의의 제례 절차는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헌관을 비롯한 일부 참여자들이 달라지지만, 그 외의 절차는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은 제향의 위계가 달랐다. 이 두 의주는 국왕이 참여한 경우에도 제주의 사용과 진설에서 차이가 있었다.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의 친향의에서 사용한 제물을 정리해보면 <부표 3>, <부표 4>와 같다.

먼저 <부표 3>은 신관 단계이다. 여기서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의 차이가 없다. 제례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人鬼를 모시기 때문에 제주와 진설의 변화는 없다. <부표 4>는 귀식 단계이며 이를 <표 3>과 같이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

19) 『舊唐書』 卷44 職官3 光祿寺

20) 안병우,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56-57, 서울대학교출판부

21) 『高麗史』 百官志

<표 3>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饋食

순서	내 용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ㄱ. 초헌	체향 제주: 범제	시향(봄, 여름) 제주: 예제
	체향 주기: 사준	시향(봄, 여름) 주기: 사준
	협향 제주: 범제	시향(가을, 겨울, 납일) 제주: 예제
	협향 주기: 사준	시향(가을, 겨울, 납일) 주기: 착준
ㄴ. 아헌	체향 제주: 예제	시향(봄, 여름) 제주: 양제
	체향 주기: 상준	시향(봄, 여름) 주기: 상준
	협향 제주: 예제	시향(가을, 겨울, 납일) 제주: 양제
	협향 주기: 상준	시향(가을, 겨울, 납일) 주기: 호준
ㄷ. 종헌	체향 제주: 예제	시향(봄, 여름) 제주: 양제
	체향 주기: 착준	시향(봄, 여름) 주기: 상준
	협향 제주: 예제	시향(가을, 겨울, 납일) 제주: 양제
	협향 주기: 착준	시향(가을, 겨울, 납일) 주기: 호준

체향·협향에서 사용하는 제주는 범제, 예제, 양제이고, 진설하는 주기는 사준, 상준, 착준이다. 시향·납향에서 는 예제, 양제를 사용하고 착준과 호준의 주기를 진설한다. 이를 통해 제주와 주기의 진설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향·납향은 주기 진설의 형식이 더 다양하다. 오른쪽의 의례는 체향의 내용이다. 그리고 B, D, F를 통해 협향의 의례가 체향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B', D', F'는 가을, 겨울, 납일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III장에서 다루겠다.

정리하자면 태묘는 기록이 부족한 삭망천신기도급주고의를 제외하면 네 가지의 주가 있는데, 국왕의 참여 여부와 제향의 위계에 따라 구분한다. 먼저 국왕의 참여여부로 친향의와 섭사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헌관과 집례자들의 역할이 달라졌다. 태위는 친향의의 아헌이나 종헌을 맡고, 섭사의에서는 초헌을 담당했다. 이는 국왕과 태자 다음의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태위는 주로 재추의 반열에 오른 고위 품관이나 妃父, 王子같은 왕족으로 임명 하였다.

다음으로 제향의 위계에 따라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나눈다. 여기서는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향·납향은 봄과 여름을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가을, 겨울, 납일을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체향·협향보다 더 많은 형식이 있었다.

### Ⅲ. 酒器의 진설

#### 1. 彝의 진설

태묘 제례에서 사용한 주기로는 彝와 尊이 있다. 彝는 人鬼를 모실 때 사용하는 酒器로써 울창주와 명수를 담았고, 尊은 오제와 명수를 담았다. 여기서는 주기의 형태와 진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고려 주기의 유물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三禮圖』와 고려가 송의 예제를 받아들일 무렵 작성된 『禮書』의 도설을 참고하였다. 『禮書』는 15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陳祥道가 편찬하였는데 편찬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가 治平年間(1064~1067)에 進士로, 元祐年間(1086~1094)에 태상박사, 비서성정자를 역임하였으므로 治平, 元祐年間으로 생각된다. 두 예서에 남아있는 彝의 모습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三禮圖』와 『禮書』 彝 비교



彝의 종류는 鷄彝, 鳥彝, 罍彝, 黃彝, 虎彝, 蜚彝가 있다. 각각 닭, 새, 벼, 눈(目), 호랑이의 그림이 있고 유이 역시 호랑이의 그림이 있다. 계이와 조이는 봄, 여름에 사용하며, 가이와 황이는 가을 겨울에 사용하고, 호이와 유이는 체향과 협향에 사용한다. 『三禮圖』 시기의 화려한 문양과 기형은 『禮書』에 와서는 단순화 되고 상징적인 특징만 남았다.

고려 성종 대 송으로부터 예서를 수입할 때는 고려가 『三禮圖』의 도설을 확보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초기彝의 형태는 『三禮圖』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三禮圖』에 정리된 송 이전 시대의 예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고려사에 기록된彝의 진설을 살펴보자.

㉑ 禘祫親享儀 : 신위마다 당 위에는, 유이 하나, 호이 하나…를 두 줄로 차린다. 유이에는 명수를 담고, 호이에는 울창주를 담으며…협향 할 때의 尊과 彝도 이와 같이 한다.<sup>22)</sup>

彝의 진설은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이 다르다. 먼저 체향·협향에서는 똑같이 유이와 호이를 사용한다. 이 둘은 준이소에 한 쌍으로 진설된다. 모든 준이는 신위가 북쪽에 있을 때 준이소의 서쪽이 上尊이 되며,<sup>23)</sup> 上尊에는 제수를 담고 다른 하나는 울창주, 오제, 삼주를 담는다. 즉 유이를 上尊으로 하고 명수를 담아 서쪽에 놓고, 호이에 울창주를 담았다.<sup>24)</sup>

다음으로 시향·납향에서는 4종의彝를 사용한다.

㉒ 四孟月及臘親享儀 : 봄, 여름에는 계이에 명수를 담고 조이에 울창주를 담는다…가을, 겨울, 납일은 가이에 명수를 담고 황이에 울창주를 담는다.<sup>25)</sup>

22)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陳設. “每位堂上 蜚彝一 虎彝一 … 爲二重 … 蜚彝實明水 虎彝實鬱鬯 … 祫享尊彝亦同.”

23)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四孟月及臘親享儀. “罍彝黃彝二行 著尊第三行 壺尊第四行 山罍以右爲上.”

24)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晨祿 “蜚彝實明水 虎彝實鬱鬯 … 祫享尊彝亦同.”

25)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四孟月及臘親享儀 晨祿. “春夏雞彝實明水 鳥彝實鬱鬯 … 秋冬與臘 罍彝實明水 黃彝實鬱鬯.”

봄과 여름에는 계이와 조이를 사용하였는데, 계이에 명수를 담고 上尊에 두며, 조이에 울창주를 담는다. 가을, 겨울, 납일에는 가이와 황이를 사용하였으며, 가이에 명수를 담아 上尊에 놓고, 황이에는 울창주를 담는다. 고려에서는 봄과 여름에 같은 진설 방식을 사용하고 가을, 겨울, 납일에 하나의 진설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彝 진설 방식은 『大唐開元禮』의 방식과 유사하다. 먼저 『大唐開元禮』의 태묘 시향 사료를 보자.

⑪ 尊彝의 자리를 묘당 전영 사이, 각 실호에 마다 북향하도록 설치한다. 봄과 여름에는 계이하나, 조이 하나를 놓고…가을과 겨울에는 가이 하나, 황이 하나를 놓는다.…모두 서쪽이 높다.<sup>26)</sup>

고려와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에 계이와 조이를 놓고 가을과 겨울에는 가이와 황이를 놓는 점이 유사하다. 반면 체향·협향에서는 고려와 차이를 보인다. ⑬과 ⑭번은 각각 협향과 체향의 사료이다.

⑫ 尊彝의 자리를 묘당의 위와 아래에 모든 신좌마다 설치한다. 가이 하나, 황이 하나를 놓는다.<sup>27)</sup>

⑬ 尊彝의 자리를 묘당의 위와 아래에 모든 신좌마다 설치한다. 계이 하나, 조이 하나를 놓는다.<sup>28)</sup>

체향·협향에서 고려가 호이와 유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大唐開元禮』는 협향에 가이와 황이, 체향에 계이와 조이를 사용한다. 즉 고려는 시향에서 봄과 여름을 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가을 겨울을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大唐開元禮』의 진설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납일을 더해 가을, 겨울과 같은 형식으로 진설하고, 호이와 유이를 추가하여 체향·협향의 진설을 시향과 분리하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太常因革禮』의 彝 진설은 아래 기록에서 보는 것 처럼 『高麗史』 禮志와 『大唐開元禮』의 것과 동일하다.

26) 『大唐開元禮』 卷37 皇帝時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 前楹間各於室戶之北向 春夏每實鷄彝一鳥彝一 … 秋冬每實罍彝一黃彝一 … 皆西上.”

27) 『大唐開元禮』 卷39 皇帝祫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下每座 罍彝一黃彝一 ….”

28) 『大唐開元禮』 卷41 皇帝禘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之上下每座 鷄彝一鳥彝一 ….”



⑭ 태묘에서 준이의 위치는 묘 당상 전영 사이에 둔다. 계이와 가이를 두고…上尊에는 元酒를 채운다. 조이, 황이에는 울창주를 담고 … 이는 모두 개 보통례에서 나왔다.<sup>29)</sup>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禮書』의 진설은 다르다.

⑮ 준을 2개 진설할 때에 하나에는 현주를, 하나에는 齊를 담는다. 봄에는 계이에 명수를, 조이에 울창주를 담고, 여름에는 조이에 명수를, 계이에 울창주를 담으며, 가이, 황이, 호이, 유이도 서로 쌍을 이루어 사용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한다. 선대의 유학자들은 계이와 호이는 명수만을 담고, 조이, 황이, 유이는 울창주만을 담는다고 했는데 그러하지 않다.<sup>30)</sup>

기존의 四時에 두 개의 진설 형태를 사용하는 고려와 달리 『禮書』에서는 봄과 여름의 彝를 바꾸어 두 개의 진설을 사용한다. 따라서 계절마다 진설을 다르게 하여 총 4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체향·협향에서 호이와 유이의 사용도 『大唐開元禮』에는 없는 내용이다. 또한 『禮書』에서 『高麗史』 禮志와 같은 진설을 “先儒”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즉 고려의 진설은 『禮書』 이전의 예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9) 『太常因革禮』 卷 第13 五齊三酒. “太廟樽彝之位置廟堂上前楹間鷄彝罍彝 … 上樽實以元酒 鳥彝黃彝實以鬱鬯 … 此皆出於開寶通禮.”

30) 『禮書』 卷95 尊彝. “兩尊之設一以盛玄酒 一以盛齊矣 春卽鷄彝盛明水 鳥彝盛鬱鬯 夏卽鳥彝盛明水 鳥彝盛鬱鬯而罍黃虎雉之相爲用亦若此也 此先儒爲鷄彝虎彝專盛明水 鳥黃雉彝專盛鬱鬯 恐不然也.”

<표 4> 彝 진설 비교

		『大唐開元禮』		『太上因革禮』		『禮書』		『高麗史』禮志	
祭酒		明水	鬱鬯酒	明水	鬱鬯酒	明水	鬱鬯酒	明水	鬱鬯酒
禘享		鷄彝	烏彝	-	-	虎彝	雉彝	虎彝	雉彝
祫享		罍彝	黃彝	-	-	雉彝	虎彝		
時享	春	鷄彝	烏彝	鷄彝	烏彝	鷄彝	烏彝	鷄彝	烏彝
	夏					烏彝	鷄彝		
	秋	罍彝	黃彝	罍彝	黃彝	罍彝	黃彝	罍彝	黃彝
	冬					黃彝	罍彝		
臘日		-	-	-	-	-	-		

먼저 시향에서 고려는 『禮書』의 진설과 달리 『太常因革禮』를 따라 2개의 진설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두 시기의 제사에 하나의 진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체향·협향까지 확대하여 적용했다. 하지만 彝는 『禮書』 이후에 등장한 호이와 유이를 사용하고 있다.

당제에 없는 彝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周禮』 등 송 이전의 예서나 『禮書』를 통해 호이와 유이를 고려의 방식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 시향은 당제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체향·협향은 당제와 송제를 참고하여 고려의 형식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은 『開寶通禮』에 나오는 체향·협향 진설을 그대로 채용했을 수 있다. 『開寶通禮』는 현전하지 않고 『太常因革禮』의 체향·협향 진설 내용도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가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종 때 받아들인 예제가 당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시향에서 두 시기를 하나의 진설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고려 의종 이전의 체향·협향 진설은 알 수 없지만 호이와 유이의 진설은 숙종 무렵에 『開寶通禮』가 들어오면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사용한 송 이전의 예제는 『大唐開元禮』와 흡사하다. 따라서 현전하는 예서로 성종부터 숙종까지 시기를 『大唐開元禮』로 확인했고, 숙종 이후의 시기를 『太常因革禮』로 확인했다. 『高麗史』禮志는 고려 의종 대의 예제를 반영하고 있다.<sup>31)</sup> 이는 송제와 당제를 모두 받아들인 이후이다. 시기적으로 고려는 당제와 송제를 확보하여 선택적으로, 혹은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송제의 도입 이후 호이와 유이를

31) 김철웅, 2003, 「『상정고금례』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 33, 233-252

사용하여 彘의 진설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체향·협향을 시향·납향과 구분함으로써 고려  
나름의 진설 방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2. 尊의 진설

尊은 오제와 명수를 담는 주기이다. 고려에서 사용한 尊은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太尊 다섯 가지이다. 尊은 고려 성종 대 송에서 받아들인 유교 예제에 따라 진설했다. 이 시기에 고려에 도입된 예제는 『大唐開元禮』나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한 예제로 보인다. 이후 숙종 대에 송의 유교예제를 도입하였고, 의종 대에 이를 변용하여 고려의 방식을 만들었다. 따라서 고려 尊의 진설 형식이 당과 송의 예제 중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는 희준과 상준의 모양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犧尊, 象尊 비교



彝와 마찬가지로 고려 尊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송에서 사준과 상준에 대하여는 『三禮圖』를 편찬할 무렵 두 가지 설이 있었다. 鄭玄은 『周禮註疏』에서 희준을 물총새(翡翠)로 꾸미고 상준을 봉황, 혹은 코끼리의 뼈로 꾸민다고 하였다.<sup>32)</sup> 반면 阮謙은 희준과 상준에 각각 소와 코끼리의 그림을 새겼다고 하였다. 이는 정현이 후한 말기의 인물이고 완심이 송의 인물이라는 시간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禮書』에서는 정현의 설이 누락되고 희준과 상준은 소와 코끼리의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림 3>은 착준, 호준, 태준의 비교이다.

32) 『周禮註疏』春官宗伯 司尊彝 鄭玄 注. “犧尊飾以翡翠象尊以象鳳皇或曰以象骨 飾尊 … 罍讀為稼稼彝畫禾稼也 … 黃彝黃目尊也.”

<그림 3> 著尊, 壺尊, 太尊 비교



『三禮圖』는 기종이 모두 다르지만 『禮書』에서는 기종이 비슷하고 부리가 달려있다. 이를 북송 대 잠깐 유행하던 장식성 특징이라고 보기도 한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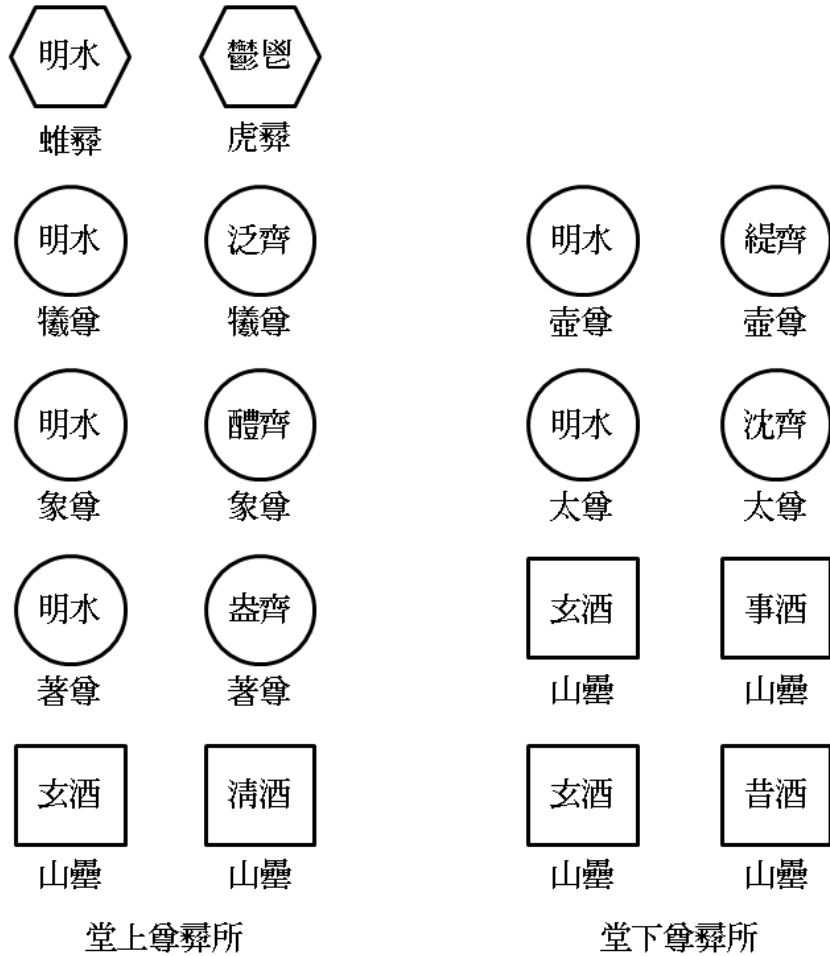
다음으로 尊의 진설에 관하여 살펴보자. 고려 태묘제례는 체향·협향의 진설과 시향·납향의 진설이 있다. 이 두 진설 방식은 준이소의 개수, 尊의 진설, 오제의 사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4>는 태묘 체향·협향의와 유사·섭사의의 준이소를 표시한 것이다. 두 의주 모두 준이소를 堂上과 堂下 두 곳에 진설하였으며, 친향의와 섭사의의 차이는 없었다. 유교 제례에서 제물은 품목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sup>34)</sup> 太祀에 가까운 제례에서는 많은 제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제물을 담는 祭器의 수도 많아진다. 따라서 당상에는 사준, 상준, 착준을 놓고 당하에는 호준, 태준을 진설하여 모든 종류의 尊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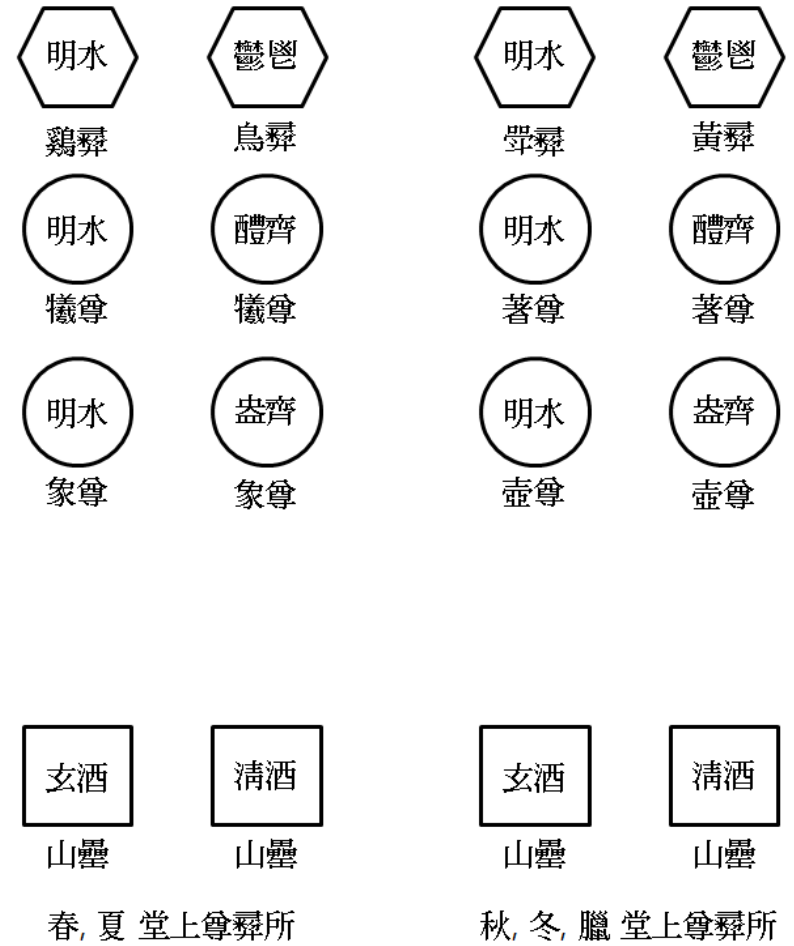
33) 박봉주, 2011, 「조선시대 국가제례와 준뢰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9』

34) 『周禮註疏』天官冢宰 酒正. “祭祀必用五齊者 至敬不尚味而貴多品.”

<그림 4> 태묘 제향·협향 친향의와 유사섭사의 준이소



<그림 5> 시향·납향 친향의와 유사섭사의 준이소



시향과 납향의 尊 진설은 봄, 여름의 진설과 가을, 겨울, 납일의 진설이 달랐다. 봄과 여름 시향의 진설은 <그림 5>의 왼쪽 준이소이다. 이는 체향·협향의 진설이 축약된 진설 형식이다. 당하에 진설했던 호준과 태준이 제외되고 당상에서 범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착준을 제외한다. 따라서 체향·협향의 '사준-범제, 상준-예제, 착준-양제'의 대응방식이 시향·납향에서는 '사준-예제, 상준-양제'로 바뀐다.

가을, 겨울의 시향과 납향의 진설은 <그림 5>의 오른쪽과 같이 착준 호준을 사용하여 '착준-예제, 호준-양제'의 대응을 이룬다. 이와 같은 尊의 진설 형식은 『大唐開元禮』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大唐開元禮』의 체향과 협향 사료를 살펴보자.

⑯ 준이소를 신좌마다 태묘의 당상과 당하에 설치한다. 계이 하나, 조이 하나, 사준 둘, 상준 둘, 착준 둘, 산뢰 둘을 당 상에 놓는다. … 그 호준 둘, 태준 둘, 산뢰 넷은 모두 당 하에 놓는다.<sup>35)</sup>

⑰ 준이소를 신좌마다 태묘의 당상과 당하에 설치한다. 가이 하나, 황이 하나, 사준 둘, 상준 둘, 착준 둘, 산뢰 둘을 당 상에 놓는다. … 그 호준 둘, 태준 둘, 산뢰 넷은 모두 당 하에 놓는다.<sup>36)</sup>

⑯과 ⑰번은 각각 『太常因革禮』에서는 체향·협향의 진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위의 두 사료에 보이는 尊의 진설은 고려와 동일하다. 당상에 사준 둘, 상준 둘, 착준 둘, 산뢰 둘을 진설하고 당하에 호준 둘, 태준 둘, 산뢰 넷을 사용한다.

다음 『大唐開元禮』의 시향에 관한 기록을 보면,

⑱ 준이소를 태묘 당상 전영 사이에 설치한다. 각 실호마다 북향하게 한다. 봄, 여름은 매 실마다 계이 하나, 조이 하나, 사준 둘, 상준 둘, 산뢰 둘을 놓고 가을, 겨울은 매 실마다 가이 하나, 황이 하나, 착준 둘, 호준 둘, 산뢰 둘을 놓는다. … 모두 서쪽이 높다.<sup>37)</sup>

35) 『大唐開元禮』 卷41 皇帝禘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下每座 鷄彝一鳥彝一犧尊二象尊二著尊二山壘二在堂上 … 其壺尊二太尊二山壘四皆在堂下.”

36) 『大唐開元禮』 卷39 皇帝祫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下每座 罍彝一黃彝一犧尊二象尊二著尊二山壘二在堂上其壺尊二太尊二山壘四皆在於堂下.”

37) 『大唐開元禮』 卷37 皇帝時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前楹間各於室戶之在北向 春夏每室鷄彝一鳥彝一犧尊二象尊二山壘二秋冬每室罍彝一黃彝一著尊二壺尊二山壘二 … 皆西上.”

고 하였고, 『太常因革禮』에서는

⑭ 태묘의 준이의 위치는 묘당 위에 설치하며 전영 사이에 둔다. 계이와 가이 및 사준, 상준, 착준, 호준은 모두 명수로 채우고, 산뢰의 上尊은 元酒를 채운다. 조이와 황이는 울창주를 담고, 사준에는 예제를 담고, 상준과 호준에는 양제를 담고, 산뢰에는 청주를 담는다. 이는 모두 『開寶通禮』에서 나왔다.<sup>38)</sup>

『大唐開元禮』에서 기록된 尊의 진설은 고려와 일치한다. 봄, 여름의 진설과 가을, 겨울의 형식을 다르게 사용한 점과 그 배치 역시 같다.

『太常因革禮』의 진설은 어떤 종류의 태묘제례인지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상과 당하의 진설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향의 진설로 보인다. 여기서는 『大唐開元禮』와 다른 진설 형식을 기록하고 있다.

尊에 담은 제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上尊의 진설에서 사준, 상준, 착준, 호준에 명수를 담고 下尊에서는 사준, 상준, 호준만 언급하고 있다. 즉 착준은 하나만 진설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기록대로 하나만 진설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착준은 하나만 진설하는 경우는 성립하기 어렵다. 『太常因革禮』 편찬 전후 시기 예서에는 모두 尊을 같은 기종 한 쌍씩 진설한다. 그러므로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착준을 한 쌍인데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와 기록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록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진설 형태가 사준, 상준, 착준, 호준 4쌍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 사준, 상준, 호준 3쌍이 된다. 고려와 당, 송의 尊 진설은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38) 『太常因革禮』 卷13 五齊三酒. “廟樽壘之位設廟堂上前楹間 鷄彝罍彝及犧樽象樽著樽壺樽皆實以明水 山壘之上樽實以元酒 烏彝黃彝實鬱鬯 犧樽實以醴齊 象樽壺樽實以盎齊 山壘實以清酒 此皆出於開寶通禮.”



<표 5> 尊 진설 비교

예서	『大唐開元禮』		『太上因革禮』		『高麗史』禮志	
	堂上	堂下	堂上	堂下	堂上	堂下
禘享	犧樽/犧樽 象樽/象樽	壺樽/壺樽 太樽/太樽	-	-	犧尊/犧尊 象尊/象尊	壺尊/壺尊 太尊/太尊
禘享	著樽/著樽		-	-	著尊/著尊	
時 享	春	犧樽/犧樽		犧樽/犧樽	犧尊/犧尊	
	夏	象樽/象樽	-	象樽/象樽	象尊/象尊	-
	秋	著樽/著樽		[著樽/ - ]		
	冬	壺樽/壺樽	-	壺樽/壺樽	著尊/著尊 壺尊/壺尊	-
臘日	-	-	-	-		

『高麗史』禮志가 기준으로 삼은 의종 무렵 尊의 진설은 당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송의 체향·협향 진설은 알 수 없지만 시향에서는 고려와 차이를 보인다. 송은 건국 초 『開寶通禮』 편찬 당시 당과 다른 진설 형태를 사용했고, 1세기 이후 『太常因革禮』를 편찬할 때까지 송의 방식으로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의 부재로 당과 송의 진설 형식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려가 당의 진설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고려의 태묘 의주 중 체향·친향의, 체향·유사·섭사의, 시향·납향·친향의, 시향·납향·유사·섭사의의 진설을 비교했다. 이 네 가지 태묘 의주는 국왕의 참여 여부와 제향의 위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려가 사용한 尊 진설의 특징은 같은 위계의 제향일 경우 친향의이든 섭사의이든 尊의 진설에 차이가 없지만, 제향의 위계가 다를 경우 준이소의 개수와 尊의 진설에 차이를 두었다.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구분하여 尊을 진설한 것은 祭主인 현 국왕이 아니라 제례 대상인 역대 국왕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祭酒의 주조와 사용

### 1. 五齊의 주조와 사용

유교 제례에서는 총 9종의 술과 2종의 祭水를 제주로 사용했다. 이들 제주는 사용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鬱鬯酒, 둘째는 五齊, 셋째는 三酒, 넷째는 제수인 明水와 玄酒이다. 명수와 현주는 물이지만, 제주와 함께 진설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주에 포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彝에 담는 울창주, 명수를 다루고자 한다.

명수는 제향할 때 진설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다섯 가지 맛의 근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로써 진설하기 때문이다.<sup>39)</sup> 울창주는 人鬼降神의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인귀를 모시는 태묘와 별묘 제향에서만 사용하였다.

五齊는 泛齊, 醴齊, 盎齊, 緹齊, 沈齊로써 헌작에 사용하는 제주이다. 헌작은 祭主와 제례 대상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의례기 때문에 오제의 사용은 祭主와 제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체험친향의, 체험유사섭사의, 시향·납향 친향의, 시향·납향 유사섭사의 등 의주에서 사용한 오제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고려는 태묘에서 사용한 오제의 주조법을 남기지 않았다. 다행이도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世宗實錄』 五禮 조항에 주조에 관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조법을 알아볼 수 있다.

⑳ 범(泛)이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면 찌꺼기가 뜨는 모양이고, 예(醴)는 술이 이루어지면 즙(汁)과 찌꺼기가 서로 함께 되는 것이고, 양(盎)은 술이 이루어지면 넘쳐서 아주 얽은 푸른빛이 되는 것이고, 체(緹)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면 빛이 붉은 것이고, 침(沈)이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면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예(醴) 이상의 것은 술이 조금 탁한 것이고, 양 이하의 것은 조금 맑게 된 것인데, 그 형상의 종류는 그러하다. 제(齊)가 만들어질 적에 처음에는 그 기운이 떠오르고, 다음에는 술의 체질(體質)이 있고, 중간에는 얽은 푸른빛이 떠오르고, 오래 되면 빛이 붉고, 마침내는 찌꺼기가 가라앉게 된다.<sup>40)</sup>

39) 『禮記註疏』 郊特牲 卷26 祭11. “玄酒明水之尚貴五味之本也.”

40)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 序例 饌實圖說. “泛者 成而滓泛泛然 醴成而汁滓相將 盎成而翁翁然 葱白色 緹者 成而紅赤 沈者 成而滓沈 自醴以上尤濁 盎以下差清 其象類則然 齊之作也 始則其氣泛然 次則有酒之體 中則盎然而浮 久則赤 終則沈 泛 芳劍反 齊 才細反 盎 烏浪反 緹音體..”

⑳ 禮曹에서 아뢰기를, "本朝에서 종묘·사직 제사에 범제·예제·양제·체제·침제를 모두 청주로 대신합니다. 『文獻通考』에 이르기를, 『禮經』을 상고하면 오제는 지금의 配酒인데, 그 齊가 겨울에는 25일, 봄·가을에는 15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향아리[甕]에서 撥醅하여 浮蟻가 醅面에 솟아오르는데, 지금 그것을 撥醅라고 이르니, 그것이 이른바 범제이다. 발배를 接取하고 그 아래 齊를 淸(汁)과 滓(滓)를 서로 섞은 것을 지금 醅芽라고 이르는데, 그것이 이른바 예제이다. 이미 배아를 취하고 나서 용수(筭)를 그 가운데에 박으면 그 齊가 葱白色이 되어 들어오는데, 지금 帶醅라고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양제이다. 겨울에는 한 달, 봄·가을에는 20일, 여름에는 10일이 되면 醅의 빛이 변하여 조금 붉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체제이다. 겨울에는 35일, 봄·가을에는 外撥하여 醅面을 헤치고 보면 위는 맑고 아래는 가라앉았으니, 그것이 이른바 침제이다." 하였으니, 오제는 『文獻通考』에 의하여 齊를 각각 두 향아리를 양조하여 시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1)</sup>

㉑번 사료에서는 오제가 술을 거르는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술은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 재료를 배합하면 그 과정에서 한차례 부풀어 오르고 이후 사그라진다. 이 때 술이 부풀어 오르는 양제를 기준으로 술이 익기 전과 익은 후로 나눌 수 있다. 때문에 예 이상을 탁하다고 하였고, 양 이하는 맑다고 구분한 것이다. 즉 범제, 예제는 아직 채 익지 않은 탁한 술이며, 체제, 침제는 청주에 가까운 맑은 술이다.

㉒번 사료에서는 예조에서 오제를 모두 청주로 사용하는 것이 예법에 어긋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오제를 주조하기 위해 다섯 번 거르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세조 때는 청주로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예조에서는 『文獻通考』에 인용된 『禮經』대로 오제를 복원하는 작업을 건의하고 있다.

오제를 주조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41) 『世祖實錄』卷5 世祖 2年 12月 22日. “禮曹啓 本朝宗廟 社稷祭 泛齊 醴齊 盎齊 緹齊 沈齊俱代以清酒 文獻通考云 考之 禮經 五齊今醅酒 其齊冬二十五日 春秋十五日 夏十日撥醅甕 而浮蟻湧於面 今謂之撥醅 豈其所謂泛齊耶 接取撥醅 其下齊汁與滓相將 今謂之醅芽 豈其所謂醴齊耶 既取醅芽 置芻其中 其齊葱白色入焉 今謂之帶醅 豈其所謂盎齊耶 冬一月 春秋二十日 夏十日醅色變而微赤 豈其所謂緹齊耶 冬三十五日 春秋二十五日外撥 撥開醅面觀之 上清下沈 豈其所謂沈齊耶 前項五齊依 文獻通考齊各二甕造釀試驗 從之.”

<표 6> 五齊 酒造과정,

	冬	春/秋	夏	내용
泛齊	25日	15日	10日	撥醅: 浮蟻가 醅面에 솟아오르는 것
醴齊	[25日]	[15日]	[10日]	醅芽 : 발배를 接取하고 그 아래 齊를 즈(汁)과 찌끼(滓)를 서로 섞은 것
盎齊	[25日]	[15日]	[10日]	帶醅 : 醅芽를 취하고 나서 용수(筭)를 그 가운데에 박으면 그 齊가 葱白色이 되어 들어오는 것
緹齊	30日	20日	10日	醅의 빛이 변하여 조금 붉게 되는 상태
沈齊	35日	25日	-	外撥하여 醅面을 헤치고 보면 위는 맑고 아래는 가라앉은 상태

『世祖實錄』 卷5, 世祖 2年 12月 22日

\* [ ]안의 내용은 추정 기간

세조실록에서는 酒造 기간과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기간은 대략 모든 술이 만들어지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범제부터 양제까지는 같은 시기에 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범제와 예제는 술이 만들어질 때 즈(汁)과 찌끼(滓)를 섞어 거르는데 이는 술이 빛어지기 이전 단계이다.

세종 대와 마찬가지로 양제가 오제 분류의 기준이 된다. ㉔에서 최초로 양제를 거를 때 용수를 사용하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는 청주를 거르기 위한 도구이다. 용수를 다 익은 술독 안에 박아 넣어서 맑은 술을 얻는 데 사용한다.

체제와 침제는 양제 이후 거르는 술이다. 특히 침제의 경우 위는 맑고 아래는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양제 이하는 청주의 가까운 술임을 표현한 것이다. 범제와 예제는 탁주에 가깝고 양제는 술이 익기 전 청주의 분기점이며, 체제, 침제는 청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사에서 사용하는 오제는 맛보다는 종류의 다양성을 중시했다.

㉔ 제사는 반드시 오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공경하는 것이며, 맛을 숭상하지 않고 품목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sup>42)</sup>

42) 『周禮註疏』 天官冢宰 酒正. “祭祀必用五齊者 至敬不尚味而貴多品.”

⑳번 사료는 제물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제 역시 맛이 좋은 것 보다 질박한 것을 높은 제물로 삼는다. 위의 오제는 질박한 순서대로 나열했다. 주조 기간은 범제가 가장 짧으며 침제가 가장 길다. 즉 오제에서 제주의 위계는 주조 기간에 비례한다.

체향·협향 당상에서 신좌와 가까운 곳에 가장 높은 오제인 범제를 담고, 당하에서 신좌와 가장 먼 곳에 침제를 담는다.<sup>43)</sup> Ⅲ장 1절에서 살펴본 대로 태묘 체협친향의와 유사섭사의의 尊 진설은 동일 하였으므로, 체향·협향에서 사용하는 오제도 친향의와 섭사의가 같았다.

시향·납향 친향의와 유사섭사의의 오제 사용 역시 동일하다. 시향과 납향의 준이소는 당상에만 진설하였다. 따라서 체향·협향에서 당하에 진설했던 체제와 침제는 진설하지 않았고, 범제도 진설하지 않았다. 체향·협향이 더 높은 제향이기 때문에 시향과 납향에서는 가장 높은 오제인 범제를 제외하고 예제와 양제만을 사용했다.

태묘에서 사용하는 오제는 아래 사료와 같다.

㉓ 禘祫親享儀 : 왕이 규를 꽃고 작을 받으면, 시중이 거들어 사준의 범제를 따른다. 협향에도 같이한다. … 태위가 작을 받침에서 집어 들면, 태축이 덮개를 벗기고, 아헌이 상준의 예제를 뜬다. 협향도 이와 같이한다. …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뇌세로 가서 손을 씻고 올라가 착준의 양제를 뜬다. 협향도 이와 같다.<sup>44)</sup>

㉔ 四孟月及臘享親享儀 : 국왕이 규를 꽃고 작을 받으면, 시중이 거들어 사준의 예제를 따른다. 가을 겨울과 납향에서는 착준의 예제를 따른다. … 아헌이 상준 양제를 뜬다. 가을과 겨울 및 납향에는 호준의 양제를 따른다. …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뇌세로 가서 관세하고 올라가 상준의 양제를 뜨면 음악을 시작한다. 가을과 겨울 및 납향에는 호준의 양제를 따른다.<sup>45)</sup>

고려의 체향·협향에서 三獻은 범제, 예제, 양제 순으로 사용하며, 시향·납향은 초

43)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又設尊彝之位每位堂上 雖彝一虎彝一犧尊二象尊二著尊二山壘二爲二重.”

44)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王摺圭受爵侍中贊酌犧尊之泛齊 祫享如之 … 太尉取爵於坵太祝去羃亞獻酌象尊之醴齊 祫享如之… 謁者引終獻官詣壘洗盥洗升酌著尊之盎齊 祫享如之.”

45)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四孟月及臘享親享儀. “王 摺圭受爵 侍中 贊酌犧尊之醴齊 秋冬與臘 酌著尊之醴齊 … 亞獻 酌象尊之盎齊 秋冬與臘 則酌壘尊之盎齊 … 謁者 引終獻官 詣壘洗 盥洗 升酌象尊之盎齊 樂作 秋冬與臘 酌壘尊之盎齊.”

헌은 예제를 사용하고 아헌과 종헌은 양제를 사용했다. 고려의 오제사용은 『大唐開元禮』의 방식과 동일하다. ㉔번은 『大唐開元禮』 체향·협향에 대한 사료이다.

㉔ 태상경이 인도하여 황제가 준이소에 이르면 尊을 담당하는 자는 덮개를 벗기고 시중이 범제 따르는 것을 돕는다. …알자가 인도하여 태위가 동쪽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이소에 이르면 尊을 담당하는 자는 덮개를 벗기고 태위는 예제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광록경이 뇌세에 이르면 작을 씻고 양제를 따른다. 종헌의 절차는 아헌과 같다.<sup>46)</sup>

『大唐開元禮』의 시향은 아래와 같다.

㉕ 태상경이 인도하여 황제가 준이소에 이르면 尊을 담당하는 자는 덮개를 벗기고 시중이 예제 따르는 것을 돕는다. …알자가 인도하여 태위가 동쪽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이소에 이르면 尊을 담당하는 자는 덮개를 벗기고 태위는 양제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광록경이 뇌세에 이르면 작을 씻고 양제를 따른다. 종헌의 절차는 아헌과 같다<sup>47)</sup>

『大唐開元禮』의 체향·협향은 고려와 동일하다. 체향·협향에서 사용하던 범제가 빠지고 예제를 초헌에 사용했고, 아헌과 종헌에서 양제를 사용했다. 헌작에서 사용한 오제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46) 『大唐開元禮』卷41 皇帝禘享於太廟. “太常卿引皇帝詣獻祖尊彝所 執尊者舉冪侍中贊酌汎齊 … 謁者引太尉升自阼階詣獻祖尊彝所 執尊者舉冪太尉酌醴齊 … 謁者引光祿卿詣罍洗盥洗爵升酌盎齊 終獻如亞獻之儀.”

47) 『大唐開元禮』卷39 皇帝時享於太廟. “太常卿引皇帝詣獻祖尊彝所 執尊者舉冪侍中贊酌醴齊 … 謁者引太尉升自阼階詣獻祖尊彝所 執尊者舉冪太尉酌盎齊 … 謁者引光祿卿詣罍洗爵升酌盎齊 如亞獻之儀.”

<표 7> 오제 사용 비교

		『大唐開元禮』	『高麗史』禮志
禘享/禘享	初獻	汎齊	泛齊
	亞獻	醴齊	醴齊
	終獻	盎齊	盎齊
時享	初獻	醴齊	醴齊
	亞獻	盎齊	盎齊
	終獻	盎齊	盎齊
臘日		-	時享과 동일

헌작에서의 오제 사용 역시 『大唐開元禮』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彝와 尊의 진설처럼 오제도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오제 사용의 대부분은 일치했다. 고려는 체향·협향에서 헌관에 따라 제주를 구분하여 가장 높은 술을 국왕이 헌작한다. 그리고 아헌과 종헌에서 각각 예제, 양제를 사용하여 헌관의 지위에 따라 오제를 사용했다.

시향은 체향·협향에서는 예제와 양제만을 사용하였는데, 국왕이 범제의 다음 오제인 예제를 사용하고 아헌과 종헌이 양제를 사용했다. 이는 헌작에서 사용하는 오제로 국왕과 신하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오제를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는 오제의 사용으로 국왕의 지위를 가시적으로 구분하였다.

## 2. 음복과 분사

의례에서 사용한 제물은 신에게 바치고 나서 묻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는 음복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소비했다. 음복은 신에게 바치는 헌작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사용한 음복주는 제수 중 하나인 현주다. 제수에는 명수와 현주가 있다. 가공하지 않은 물을 진설하는 것은 다섯 가지 맛의 근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㉞ 유이에는 명수를 담고, 호이에는 울창주를 담으며, 사준 둘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범제를 담는다. 상준 둘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예제를 담으며, 착준 둘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양제를 담는다. 산뢰 둘 중 하나에는 현주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청주를 담는다. 당 아래의 호준 둘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제제를 담는다. 태준 둘 중 하나에는 명수를 담고, 다른 하나에는 침제를 담는다. 산뢰 넷 중 둘에는 현주를 담고, 나머지 하나에는 사주를 담고, 하나에는 석주를 담는다. 협향할 때의 준과 이도 같이 한다.<sup>48)</sup>

㉞번은 태묘 체협친향의 사료이다. 당상의 유이, 사준, 상준, 착준에 명수를 담고 산뢰에 현주를 담는다. 당하의 호준 태준에 명수를 담고 산뢰에 현주를 담는다. 즉 彝와 尊에 명수를 담고 罍에 현주를 담은 것이다.

음복에 사용한 제수는 어떻게, 어디서 취하였을까? 고려시대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조선 세조 대 제수의 채취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㉞ “종묘, 사직에 제사할 때 명수와 현주를 모두 우물물로 대신합니다. 지금 禮文을 상고하면, 陰鑑에서 물을 취하고 陽燧에서 불을 취하여 불로 불 피우는 데에 이바지하고 물로 잔을 채운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하늘에 제사할 때에 명수, 현주를 아울러 예문에 의하고, 음감과 양수는 미리 工曹로 하여금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9)</sup>

48)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雌彝實明水 虎彝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泛齊 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 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 山罍二一實玄酒一實清酒 堂下壺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 太尊二一實明水一實沉齊 山罍四二實酒一實事酒一實昔酒 祫享尊彝亦同.”

49) 『世祖實錄』卷5 世祖 2年 12月 22日. “祭宗廟 社稷時 明水 玄酒俱代以井水 今考禮文 取水於陰鑑 取火於陽燧 火以供爨 水以實樽 請祀天時 明水 玄酒竝依禮文 其陰鑑 陽燧預令工曹造作 從之.”



예조에서는 명수와 현주 모두 우물물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 것은 잘못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원래의 방식인 陰鑑으로 취할 것을 아뢰고 있다. 원래 명수와 현주 모두 음감으로 취하였는데, 세조 대에 이르러 둘 다 우물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 태묘에서는 省牲器단계에서 명수를 취하는 기록만 있다.<sup>50)</sup> 이는 고려에서 명수와 현주를 취하는 방법이 달랐음을 말해준다. 즉 명수는 제향 전 성생기 단계에서 음감을 통해 취하였고, 현주는 우물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태묘제례에서 사용한 음복주는 어떻게 진설되었는지 살펴보자. 아래 두 사료는 태묘 사맹월급납향친향의와 별묘의 사료이다.

㉘ 太廟 四孟月及臘享親享儀 : 첫째 줄에는 가이와 향이를, 둘째 줄에는 착준, 셋째 줄에는 호준, 넷째 줄에는 산뢰를 놓는데, 오른쪽을 상석으로 한다.<sup>51)</sup>

㉙ 別廟 : 또 尊과 彝의 자리를 室戶 밖의 왼편에 설치하되, 유이 하나, 호이 하나, 사준 둘, 상준 둘, 착준 둘, 산뢰 둘을 오른편을 상석으로 하여 두 줄로 차린다.<sup>52)</sup>

㉘번 사료에서는 준이소의 진설에서 ‘以右爲上’이라 하여 신좌가 북쪽에 있을 때 서쪽이 上尊의 위치라고 한다. ㉙번의 별묘 사료 역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彝, 尊, 壺 등의 주기는 두 줄로 진설하는데 서쪽이 上의 자리이고 동쪽이 下의 자리이다. 즉 한 줄은 제수, 다른 한쪽은 제주를 진설한다. 『高麗史』禮志에는 上尊의 자리에 배치되는 제주의 기록이 없지만, 『世宗實錄』五禮는 饌實圖가 있어 그 진설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50)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省牲器. “謁者引光祿卿詣廚省鼎鑊申視滌漑監取明水火.”

51)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四孟月及臘享親享儀. “第一行罍彝黃彝 第二行著尊 第三行壺尊 第四行山壘 以右爲上.”

52)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別廟 陳設. “又設尊彝位於室戶外之左 雖彝一虎彝一犧尊二象尊二著尊二山壘二爲二重 以右爲上.”

<그림 6> 『世宗實錄』五禮 吉禮 序例 宗廟 饌實圖 尊彝所



여기서 上尊에는 제수를 담고 下尊에는 제수를 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禮記』에서 명수와 현주가 다섯 가지 맛의 근원으로 가장 귀하며 질박한 제물일수록 높은 위계를 가진다고 하는 원칙과 일치한다. 올창주를 제외한 모든 제주를 위계별로 나열하면 명수-현주-오제-삼주 순이 된다. 즉 上尊의 위치에 가장 높은 명수를 담고 그 다음 오제를 신위와 가까운 순으로 배치하였다.

음복주가 현주였음을 다음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여러 태축들은 각각 작으로 罍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두고, 한 태축이 작을 가지고 아헌의 왼편으로 가 북향하여 선다.<sup>53)</sup>

② 왕이 헌작을 마치면, 여러 태축이 爵에다 上尊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두고, 한 태축이 작을 가지고 시중에게 주면, 시중이 받아 북향하여 올린다. 국왕은 재배하고 작을 받아 끓어얹아 술을 맛보고, 작의 술을 맛보고 작을 올린다.<sup>54)</sup>

53) 『高麗史』卷60 至 第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亞獻禮. “諸太祝各以爵酌罍福酒合置一爵 一太祝持爵進亞獻之左北向立.”

54) 『高麗史』卷61 至 第15 禮3 太廟 四孟月及臘享親享儀. “王獻訖諸太祝以爵酌上尊福酒合置一爵 一

③번과 ③번은 태묘 체협친향의 아헌과 사맹월급납향친향의의 초헌 사료이다. ③번은 罍에서 복주를 뜯다고 하였다. 준이소 上尊에는 명수와 현주를 담는데 이 중 罍에 담는 것은 현주이다. ③번도 上尊에서 복주를 떠서 모아둔다고 하였다. 이는 음복주가 현주라는 것을 말한다.

분사하는 제주는 삼주이다. 삼주는 산뢰에 담는다.

<그림 7> 罍 비교

『三禮圖』



山罍

『禮書』



山罍

고려에서 사용하는 삼주의 진설 형식은 준이소의 개수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준이소가 2개인 경우 삼주를 모두 산뢰에 담아 진설한다. 당상에는 청주를 올리고 당하에는 사주와 석주를 올린다. 준이소가 1개인 경우 청주만 산뢰에 담아 올린다. 오제의 진설과 반대로 진설의 규모가 축소되면 높은 위상을 가진 사주와 석주를 제외하고 진설한다.

삼주는 事酒, 昔酒, 淸酒이다. 『世宗實錄』 五禮는 아래와 같이 삼주를 기록했다.

③ 또 삼주는 맛이 두터워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오제는 맛이 얇아서 제사에 사용하는 것이다.<sup>55)</sup>

④ 삼주는 사주, 석주, 청주이다. 사주는 헌작에 유사한 사람으로, 제사 끝에 卑賤한 사람이 술을 얻어 마시는 것을 이름이요, 석주는 술을 빚은 후

太祝持爵授侍中 侍中受北向進王再拜 受爵跪祭酒啐爵奠爵.”  
55) 『周禮註疏』 天官冢宰 酒正. “又三酒味厚人所飲者也 五齊味薄所以祭者也.”

오랜만에 익게 되는 까닭으로 이름을 석주라 하니, 겨울에 술을 빚으면 봄이 되어야 만들어지게 되고, 청주는 또 석주보다 오래 되니, 겨울에 빚으면 여름이 되어야만 만들어지게 된다. 오제와 삼주는 모두 벼와 누룩을 사용하는데, 다만 삼주는 맛이 진하므로 사람이 마시는 것이요, 오제는 맛이 싱거우므로 제사에 쓰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말한다면 제도 또한 酒라 할 수 있으며, 그 鬯酒는 검은 기장을 사용하여 이를 만들게 되니,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sup>56)</sup>

삼주의 주조 기간은 각기 겨울에 담아서 석주는 봄에, 청주는 여름에 거른다. 대략 3개월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오제에서 가장 주조 기간이 긴 침제가 한 달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간차가 있다. 오제와 삼주는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제와 같이 제례 과정에서 삼주를 사용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사의 끝(祭末)과 비천한 사람(卑賤之人)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사주 음용의 시간과 음용자의 신분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사에는 제례 과정 중 헌관이 의례 과정에서 현주를 음복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다. 『世宗實錄』五禮종묘 제례에서도 삼주를 사용한 기록은 없다. 이는 삼주가 모든 제례 과정이 끝난 이후(祭末) 분사하는 제주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송신까지의 제례과정만을 기록한 『高麗史』禮志나 『世宗實錄』五禮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㉔번의 사료는 사주를 마시는 자를 ‘卑賤之人’이라 표현하여 음복하는 자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주를 마시는 사람이 제례 참여자 가운데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주와 청주를 마시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사주에 ‘卑賤之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와 상반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음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제삼주는 거르는 시간의 순서로 분류하면 범제가 가장 높고, 진설하는 위치도 가장 높았으며, 초헌관의 헌작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주가 장 높은 술이 된다. 여기에 사주가 가장 낮은 신분에게 분사하는 제주라면 반대로 청주는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분사하는 제주가 되었을 것이다.

태묘 제례에 참여한 관원을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56) 『世宗實錄』卷128 五禮 吉禮 序例 櫝室圖說. “三酒事酒昔酒清酒事酒酌有事之人 謂於祭末卑賤之人得飲之 昔酒久釀乃熟故名昔酒冬釀接春成 清酒又久於昔酒冬釀接夏成 五齊三酒俱用秠稻麴麩但 三酒味厚人所飲也 五齊味薄所以祭也 通言之齊亦曰酒 其鬯酒則用黑黍爲之與此別.”

<표 8> 太廟 禘祫親享儀 참여관원

품 계	관 직 명
정 1품	侍中, 太尉, 司徒, 司空
정 3품	殿中監, 太常卿, 太廟令
종 3품	光祿卿
종 5품~종7품	謁者
정 6품	尙衣奉御
종 6품	監察御史
정 7품	通事舍人, 協律郎
종 7품	太常博士
정 8품	良醞令
종 8품	宮闈令, 掌牲令, 太樂令
정 9품	大祝, 奉禮郎, 令史
종 9품	齋郎
품 외	樂工, 二舞 등

삼주 분사의 정확한 기준을 파악할 수 없지만 “卑賤之人”은 <표 7>에서 가장 아래 있는 樂工과 二舞와 같은 品外者들 이었을 것이고, 그 위로 석주와 청주를 품계에 따라 분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음복에는 현주를 사용했고 종 3품 이상의 헌관들만 참여했다. 이들은 관품을 기준으로 헌작의 자격이 부여되었다. 삼주도 음복과 마찬가지로 관품에 따라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제례의 성격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祭主와 제례 대상이 물리적으로 만날 때 이다. 특히 제주를 헌작하고 음복할 때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은 송으로부터 예제를 들여오면서 변화하였고, 『高麗史』禮志의 편찬기준이 된 의종 대에는 고려에 유입된 여러 진설 형식을 선택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II장에서는 송에서 도입된 예제의 시기와 그에 따른 彝의 진설을 다뤘다. 성종 대 고려는 송 이전의 유교 예제인 당의 예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송에서 사용하던 예제인 『開寶通禮』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후 숙종 3년(1098)에 『開寶正禮』를 구해 예부에 하사하였는데, 이 『開寶正禮』는 『開寶通禮』의 별칭으로 생각된다. 『開寶通禮』의 내용은 현전하지 않지만 이후 편찬된 『太常因革禮』에 오제의 사용과 삼주의 진설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고려 태묘 제례는 현재 네 가지 의주가 현전한다.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한 친향의와 섭사의, 제례의 위계에 따라 구분한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이 그것이다. 친향의와 섭사의는 제례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헌관이 차이가 있다.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은 헌관은 동일하지만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이 다르다.

III장에서는 주기의 진설을 다뤘다. 彝의 진설은 먼저 시향과 납향에서의 형식은 당제를 따라 봄과 여름, 두 시기를 하나의 진설로 사용하고 납일은 가을, 겨울과 함께 하나의 진설 형식을 사용했다. 숙종 대에 송의 예서가 들어오면서 호이와 유이를 사용하여 체향·협향과 시향·납향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彝은 같은 위계의 제례에서는 친향의와 섭사의 진설의 차이가 없지만, 제례의 위계가 다를 경우 준이소의 개수와 彝의 진설이 달라진다. 이는 의주의 분류 기준에서 祭主인 현 국왕의 참여 여부보다는 제례 대상인 역대 국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장은 제주의 사용을 정리하였다. 송의 오제 사용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고려의 제주 사용이 송제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과 비교했을 때 같은 방식의 진설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고려는 모든 제례에서 국왕이 별도의 오제인 예제를 사용하여 국왕을 높였다.

다음으로 제주는 맛의 근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진설했으며, 이 중 현주가 음복주임을 확인했다. 삼주는 제례 이후 분사하는 분사주로 사용했다. 이는 품계의 고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청주, 그 다음의 석주, 가장 낮은 사주 순으로 분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가 성종 대부터 숙종 대 까지 사용한 예제는 『大唐開元禮』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후 숙종 대에 송의 예서가 들어오면서 『高麗史』禮志에 수록된 의례체제가 완성된다. 그 체제가 완성되기 까지 당, 송의 예제를 변용하였다.

즉 고려는 태묘의 제례를 통해 태조를 비롯한 역대 국왕-현 국왕-품계에 따른 참여자의 질서를 부여하고 재확인했으며, 현 국왕의 참여여부보다 제향의 위계를 중시하였다. 제주에서 헌작주인 오제는 그 사용방식이 국왕의 지위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으며, 현주를 음복하였다. 참여 관원들은 품계에 따라 삼주를 분사하였다. 이러한 고려 태묘 제례의 특징들이 제주의 사용과 주기의 진설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1) 국내문헌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五禮

2) 중국문헌자료

『周禮』

『禮記』

『儀禮』

『舊唐書』

『大唐開元禮』

『三禮圖』

『太常因革禮』

『禮書』

### 2. 단행본

금장태, 2009, 『귀신과 제사 -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안병우,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56-57, 서울대학교출판부

안지원, 2006,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캐서린 벨(Catherine Bell), 류성민 譯, 2007,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 3. 연구논문

김철웅, 2003, 「『상정고금례』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 33, 233-252

김호동, 2005, 「신라말 고려초 유교정치이념 확대과정」, 『한국중세사연구』 18, 83-102, 한국중세사학회

나희라, 1997,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제98호, 57-90

박봉주, 2011, 「조선시대 국가제례와 준뢰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9



- 변동명, 2005, 「高麗時期的 儒敎와 佛敎」, 『한국중세사연구』 18, 43-91, 한국중세사학회
- 윤이흠, 2002, 「고려 종교사상의 특성과 흐름」,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강한, 2010, 「14세기 高麗 太廟의 혁신과 변천」, 『진단학보』 109, 85-113, 진단학회
- 이희덕, 1974, 「高麗時代 儒敎의 實踐倫理 : 孝倫理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10, 66-96, 한국사연구회
- 이희덕, 1982, 「高麗初期의 自然觀과 儒敎政治思想」, 『역사학보』 94.95, 161-185, 역사학회
- 채미하, 2002, 「新羅 宗廟制의 受容과 그 意味」, 『歷史學報』 第176輯, 41-65
- 최인표, 2004,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165-195, 한국학진흥원
- 최종석, 2008, 「고려초기의 관계(官階)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文散階)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실』 67, 131-169, 한국역사연구회
- 한정수,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1-44, 한국사학회
- 한정수, 2014, 「고려 태조대 팔관회(高麗 太祖代 八關會) 설행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86, 195-2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부표 1>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晨祿

行禮	내 용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晨祿	太廟令과 良醞令이 尊과 彝에 제주를 채운다.	太廟令과 良醞令이 尊과 彝에 제주를 채운다.
	太官令이 籩·豆·簠·簋에 제물을 담고 이어서 甗과 鉶를 채운다. 이를 마치면 俎肉을 놓는다.	太官令이 籩·豆·簠·簋에 제물을 담고 이어서 甗과 鉶를 채운다. 이를 마치면 俎肉을 놓는다.
	良醞令과 太官令이 配享功臣과 七祀 신위 앞을 진설한다.	良醞令과 太官令이 配享功臣과 七祀 신위 앞을 진설한다.
	太祖室에 들어가서 塋室을 열고 太祝과 宮위령이 神主를 받들고 나와 신좌에 놓는다. 마치면 차례대로 袞종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나오는데, 태조의 의식과 같다. 后妃의 신주는 남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왼편에 두고, 북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오른편에 둔다.	太祖室에 들어가서 塋室을 열면 宮위령과 祝史가 神主를 받들고 나와 신좌에 놓는다. 마치면 차례대로 袞종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나오는데, 태조의 의식과 같다. 后妃의 신주는 남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왼편에 두고, 북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오른편에 둔다.
	太常卿이 國왕을 앞에서 인도하여 태조의 신좌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鬯酒로 땅에 부어 강신한다. 袞종, 袞종, 文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의 순으로 강신하며 의식은 같다.	謁者가 太尉를 앞에서 인도하여 태조의 신좌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鬯酒로 땅에 부어 강신한다. 袞종, 袞종, 文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 袞종의 순으로 강신하며 의식은 같다.
	여러 太祝은 각각 모혈 및 간과 기름을 신좌 앞에 올리고, 그 쑥과 피와 기장은 각각 화로 곁에 놓고, 간을 취하여 화로에 태우고 尊所로 돌아간다.	여러 祝史는 각각 모혈 및 간과 기름을 신좌 앞에 올리고, 그 쑥과 피와 기장은 각각 화로 곁에 놓고, 간을 취하여 화로에 태우고 尊所로 돌아간다.

<부표 2>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饋食

行禮	내 용	
	禘祫親享儀	有司攝事儀
饋食	국왕이 사준의 범제를 따른다. 禘享도 이와 같다. … 侍中은 또 副爵을 올리고 술 따르는 것을 거든다. … 后妃의 신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작을 조금 남편으로 드리고 옆드렸다가 일어난다.	太尉는 홀을 꽃고 작을 들어 범제를 붓는다. … 謁者가 太尉를 인도하여 다음 신위로 나아가 헌작하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다.
	왕이 헌작을 마치면, 여러 太祝이 爵에다 上尊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둔다. 국왕은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술의 맛을 보고(啐) 다시 작을 올린다.	謁者가 太尉를 인도하고 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祝史들은 각기 작으로 罍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둔다. … 太尉가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胾酒(祭酒)하고 술을 맛보고 작을 드린다.
	侍中이 작의 술을 올리면 왕은 작을 받아 마시고 비운다.	太尉는 … 작을 들어 마시고 작을 비운다.
	초헌을 마치면 아헌은 太祖의 尊彝所에 나아가, 상준의 예제를 헌작한다. 禘享도 이와 같이한다. 太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 … 차례로 헌작하는 것은 모두 초헌의 의식과 같다.	太常卿은 상준의 예제를 떠서 太祖의 신좌 앞에 나아가 … 차례로 헌작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 같이 한다.
	罍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두면, 아헌이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음복한다.	太常卿은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술을 지우고 마셔서 작을 비우면, 祝史가 나아가 빈 작을 받아 받침에 도로 놓고, 太常卿이 일어나 재배한다.
	종헌관은 착준의 양제를 뜯는다. 禘享도 이와 같다. 종헌도 아헌의 의식과 같다.	謁者는 光祿卿을 인도하여 … 착준의 양제를 뜯는다. 종헌도 아헌의 의식과 같다.

<부표 3>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晨祿

行禮	내 용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晨祿	太廟令과 良醞令이 尊과 彝에 제주를 채운다.	太廟令과 良醞令이 尊과 彝에 제주를 채운다.
	太官令이 籩·豆·簠·簋에 제물을 담고 이어서 甗과 鉶를 채운다. 이를 마치면 俎肉을 놓는다.	太官令이 籩·豆·簠·簋에 제물을 담고 이어서 甗과 鉶를 채운다. 이를 마치면 俎肉을 놓는다.
	良醞令과 太官令이 配享功臣과 七祀 신위 앞을 진설한다.	良醞令과 太官令이 配享功臣과 七祀 신위 앞을 진설한다.
	太祖室에 들어가서 坫室을 열고 太祝과 궁위령이 神主를 받들고 나와 신좌에 놓는다. 마치면 차례대로 혜종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나오는데, 태조의 의식과 같다. 后妃의 신주는 남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왼편에 두고, 북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오른편에 둔다.	太祖室에 들어가서 坫室을 열고 太祝과 궁위령이 神主를 받들고 나와 신좌에 놓는다. 마치면 차례대로 혜종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나오는데, 태조의 의식과 같다. 后妃의 신주는 남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왼편에 두고, 북향으로 나란히 앉을 적에는 오른편에 둔다.
	太常卿이 국왕을 앞에서 인도하여 태조의 신좌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鬯酒로 땅에 부어 강신한다. 혜종, 현종, 문종, 순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의 순으로 강신하며 의식은 같다.	太常卿이 국왕을 앞에서 인도하여 태조의 신좌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鬯酒로 땅에 부어 강신한다. 혜종, 현종, 문종, 순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의 순으로 강신하며 의식은 같다.
	여러 太祝은 각각 모혈 및 간과 기름을 신좌 앞에 올리고, 그 쑥과 피와 기장은 각각 화로 곁에 놓고, 간을 취하여 화로에 태우고 尊所로 돌아간다.	여러 太祝은 각각 모혈 및 간과 기름을 신좌 앞에 올리고, 그 쑥과 피와 기장은 각각 화로 곁에 놓고, 간을 취하여 화로에 태우고 尊所로 돌아간다.

<부표 4> 『高麗史』禮志 太廟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饋食

行禮	내 용	
	禘祫親享儀	四孟月及臘享親享儀
晨 祿	국왕이 사준의 범제를 따른다. 祫享도 이와 같다. … 侍中은 또 副爵을 올리고 술 따르는 것을 거둔다. … 后妃의 신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작을 조금 남편으로 드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국왕이 사준의 예제를 따른다. 가을, 겨울, 납향에서는 착준의 예제를 따른다. … 侍中은 또 副爵을 올리고 술 따르는 것을 거둔다.
	왕이 헌작을 마치면, 여러 太祝이 爵에다 上尊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둔다. 국왕은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술의 맛을 보고(啐) 다시 작을 올린다.	국왕이 헌작을 마치면, 여러 太祝들이 爵으로 上尊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둔다. 국왕은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胾酒(祭酒)하고, 작의 술을 맛보고 작을 올린다.
	侍中이 작의 술을 올리면 왕은 작을 받아 마시고 비운다.	侍中이 爵의 술을 올리면 국왕은 작을 받아 마시고 비운다.
	초헌을 마치면 아헌은 太祖의 尊彝所에 나아가, 상준의 예제를 헌작한다. 祫享도 이와 같이한다. 太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 … 차례로 헌작하는 것은 모두 초헌의 의식과 같다.	아헌이 상준의 양제를 뜬다. 가을, 겨울, 납향에는 호준의 양제를 따른다. 태조의 신좌 앞에 나아가 … 차례대로 헌작하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다.
	罍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두면, 아헌이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음복한다.	罍의 福酒를 떠서 한 작에 모아두면, 아헌이 재배하고 작을 받아 꿇어앉아 음복한다.
	종헌관은 착준의 양제를 뜬다. 祫享도 이와 같다. 종헌도 아헌의 의식과 같다.	종헌관은 상준의 양제를 뜬다. 가을과 겨울 및 납향에는 호준의 양제를 따른다. 종헌도 아헌의 의식과 같다.